



기획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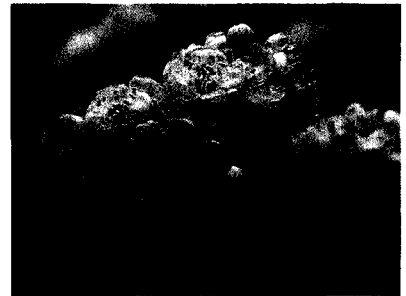
최명섭 / 임업연구원

# 산사나무



▲ 산사나무 전경

과명 : 장미과  
학명 : *Crataegus pinnatifida*  
영명 : Hawthorn, Large Chinese  
Hawthorn  
한명 : 산査木, 山裏紅  
일명 : おおさんざし



▶ 산사나무 꽃

**산사나무** 열매를 상인들이 호대추라고 속여서 파는 파렴치한 사례가 있었다. 산사나무는 크기가 제일 큰 것이 수고 7m정도 자라며 옆으로도 5m쯤 벌어져서 마치 우산을 편 형태로 자라는 보기 좋은 나무이다.

가을에 붉게 익어 달리는 것이 마치 대추와 비슷하여 잘모르는 사람들이 호대추, 산대추란 이름을 쓰고 있으나 원래 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고 산사나무는 장미과에 속하여서 분류학적으로 인연이 대단히 먼 것이다.

산사나무는 지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불리우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아가위나무, 이북에서는 아그배나무, 짚그배나무, 강원도에서는 질배나무, 동배나무, 애팡나무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한자명으로는 산사목(山査木), 산이홍(山裏紅), 산노(山櫨), 산리홍(山利紅), 홍과자(紅果子)등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쓰임새가 많아서 지방에 따라 붙여진 연유에서 온것이라 믿는다.

### 1. 생태적 특성

전국의 산기슭 및 인가부근에 자라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7m에 달하며 수평적으로는 전북, 경북 이북의 표고 100~1,250m에 자생한다. 지리적으로는 만주, 중국, 시베리아에 분포한다.

추위와 해풍에는 강한편이나 그늘에 견디는 힘은 약하여 햇빛을 좋아하며 사질양토로써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무성하게 번지며 뿌리근처에서 맹아가 올라와 하나의 산사나무 군집을 이룬다.

###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대부분 회색을 띄며 어린 줄기에는 예리한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계란형이거나 도란형이며 우상(羽狀)으로 얇게 째



▲ 산사나무 열매

지고 밑은 썩기모양이며 끝은 날카롭고 드문드문 거치가 있으며 길이 5~10cm로서 짙은 녹색이다.

5월에 지름 1.8cm의 백색꽃이 산방화서(酸房花序)로 피는데 화서의 지름은 5~8cm로써 털이 있고 꽃잎은 둥글다. 열매는 9~10월에 대추모양의 둥글고, 지름 1.5cm의 이과(梨果)가 달린다. 유사종으로는 넓은잎산사(var. major), 좁은잎산사(var. psiloba), 가새잎산사(var. rtida),

털산사(var. pubescens), 자작잎산사(var. brtulfolia)등이 있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봄에 돋는 잎은 잎의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져서 햇빛을 통해서 보는 차광미가 아름다울 뿐더러 잎의 표면은 윤택이 있어 멀리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월 10일이면 우유빛으로 곱게 피는 꽃송이는 멀리서 보면 여름철 함박눈이 송이송이 내려 앉은 청초한 감을 준다.

근래에 공해가 심하고 살충제의 사용으로 우리주위에 많은 곤충들이 죽어 가고 있으며 특히 꿀벌들이 살 수 없는 환경하에서 이러한 산사나무꽃은 밀원이 높아서 꽃이 피면서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꿀벌들은 꽃이 피어있는 20일간 이곳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꽃이 피고난 다음 여름철에는 녹음이 짙어서 정자수로도 좋으며 한여름 더위를 잊게해주는 때 미종류의 노래소리도 즐길 수 있는 수종이다.

가을이 되어 조석으로 찬이슬을 머금게 되면 나무전체에는 대추와 같은 열매들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서 나무 전체는 새빨간 꽃이 핀 듯하다. 9월부터 익는 열매는 9월말께 절정에 달하여 10월 말까지 간다.

### 4. 번식법

산사나무의 번식은 조금 어려

운 편으로 꺾꽂이는 잘 되지 않는다. 보통은 야생상태의 나무 밑에서 나온 묘목을 얻는 뿌리나누기(分根)하는 것이 쉽고 편리하나 한번에 한두개의 적은 묘목밖에 얻지 못하는 결점이 있으므로 일시에 많은 묘목을 얻기 위하여는 종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사나무 종자는 한열매에 4~5개가 들어 있는데 이들 종자는 종피(種皮)가 단단하고 딱딱하여 이를 깨뜨리려고 해도 잘깨지지 않는 단단한 종자이다. 이렇게 종피가 두껍거나 휴면을 하는 종자는 반드시 발아촉진을 시켜야 싹이 트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노천매장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노천매장 및 과중

종자를 노천에 매장하여 발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일정한 크기의 상자에다 넣어 땅속에 보관토록 한다. 장소는 물빠짐이 좋은 곳이라야 하며 상자내에 간추린 짚을 얇게 편다음 보통모래를 1~2cm가량 펴고 종자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섞어서 넣도록 한다.

이때 모래의 크기는 반드시 종자보다 가는 모래를 사용하며 모래와 종자가 섞인 것을 상자에 넣고 다시 모래를 1~2cm가량 펴고 종자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섞어서 넣도록 한다. 이때 모래의 크기는 반드시 종자보다 가는 모래를 사용하며 모래와 종자가 섞인 것을 상자에 넣고 다시 모래를 1~2cm정도 덮고 짚을 놓은후에

철망을 씌운다.

그후 땅을 깊이 70~80cm정도 파서 상자의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30cm되도록 한다. 산사나무는 2년간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에 꺼내어 과중토록 하여야 하는데  $m^2$ 당 7~10골을 내고 조파한다.

산사나무 종자는 1 $l$ 당 1만 4천 1백 28알(1kg당 2만 1천4백99알) 들어 가는데 한 골당 1백 40알 전후를 뿌려야 하므로 종자 한 되면 10 $m^2$ (3.3평)정도 뿌릴수 있으며 종자 한 되당 얻을 수 있는 묘목은 4천본정도 얻을 수 있다.

종자를 뿌린지 2~3주일이면 어린싹이 올라오는데 이때 거세미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피해가 없도록 인공포살하거나 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종자가 발아하여 자라면 한골당 묘목이 30본 정도 되도록 수유질을 하여 묘목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한다.

1년생묘목은 가을이 되면 크기가 30cm내외밖에 자라지 못하여 이 묘목들을 서리가 내리기전 굴취하여 상,중,하로 나누어 배수가 좋은 땅에 가식토록 한다. 가식하는 이유는 겨울동안 발에 그냥 내버려두면 서릿발의 피해를 받을 뿐더러 봄철에 일이 많아지므로 가을에 하는 것이다.

가식할 때에는 묘목의 끝이 반드시 남쪽을 향하도록 하고 뿌리와 뿌리사이에는 흙이 고루 들어가도록 꼭꼭 밟아준다. 이렇게 한 후 얼지 않도록 낙엽이나 짚으로 묘목의 전체를 덮어 주는 것이 좋

다.

산사나무는 1년생 묘목을 직접 심을 수 없기때문에 이듬해 봄에 밭에 이식하였다가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m^2$ 당 36본 내외로 심는 것이 좋다.

## 5. 그밖의 용도

산사나무 열매는 생으로 먹으면 약간 신 듯하나 달고 산사나무 특유의 감미로움이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위가 나쁜 아이들이나 어른이 이를 먹으면 위가 튼튼하여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이 나는 강원도 지방에 가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 열매를 말려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끓여서 차같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산사나무 열매의 소화제로써의 사용방법은 잘익은 열매를 말려두었다가 물 1 $l$ 당 50~70g의 열매를 넣고 끓인다음 차와 같이 마시면 특이한 맛이 있고 마신 후 뒷맛이 좋으며 소화도 잘된다.

뿐만 아니라, 익은 열매를 약간 익히거나 썰서 소주와 같이 두었다가 마시면 산사주(山査酒) 특유의 맛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나무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나무를 정원수나 마을나무로 식재하면 꽃도 보고 열매도 딸 수 있는 일거 양득의 나무라 할 것이다.